

2017 윤리경영 공모전 수상작(수기, 우수)

제 목	내 삶의 주인공이 되는 법
	<p>사기업에서 4년여 시간을 프로젝트 관리를 하며 보내고 새롭게 공기업에서 천연가스 유지 보수라는 업무는 아직 손에 익숙하지는 않지만, 머리로만 일을 하다 직접 만지고 현장에 사람들과 부대끼다 보니 어느 덧 2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 된지도 이제 1년이 지났고, 업무자체가 현장에서 우리 직원들과 소통하며 설비에만 집중을 하니 굳이 내가 누군가로부터 금품을 수령하거나, 주는 일이 없어 오히려 청렴이라는 말 속에 고고하게 살 수 있어 내 가족과 자신에게 떳떳하게 지낼 수 있는 하루하루가 고맙다.</p> <p>누군가에게 부정한 돈을 받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위험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교육 또는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만약 그러한 유혹이 다가 왔을 때 거절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하는 의문도 갖는다.</p> <p>4년 전 나는 국내의 대기업에서 해외에 실험실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업무를 진행하였다. 관련 계약이 체결되기 전부터 설계에 참여하여 어떤 물건이 필요한지 어디에 물건을 설치 할 곳부터 세심하게 구상을 하고 필요한 실험 절차에 따른 규정을 하나부터 열까지 세심하게 확인하며 진행을 하였다. 실험 장비이다 보니 가격은 상당히 높은 수준 이었으며, 시중에 나와 있는 업체 또한 다양하였다. 계약은 나의 업무는 아니었으나, 제품의 검사는 직접 확인이 필요하였고 관련 서류 역시 꼼꼼하게 확인하였다. 하루는 경기도에 위치한 납품업체의 요청에 따라 외국계 장비를 검사하고 관련 서류를 받는데 서류봉투 안에 다른 봉투가 있었다. 직감적으로 위험함을 느끼면 봉투를 확인하는데 역시나 다리미로 다린 것처럼 뽀뽀한 100달러가 50장이나 들어있었다. 외국계 장비의 경우 대부분 국내의 특정 기업과 독점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게 계약을 체결을 하여 중개상인들은 이를 통해 많은 이익을 얻으나, 시험 또는 계측장비들은 많은 업체가 생산하기 때문에 중개 상인들은 당시 회사 같이 대량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곳에서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 이 또한 그 방법 중 하나였다. 당시 회사 역시 윤리적으로 많은 교육을 진행하고 대외적으로 바른 이미지를 갖는 기업 중 하나였기에 나는 위험함을 감지했고, 그렇게 돈을 받아 좋은 결과를 보는 경우 없었다는 것 또한 알았다. 때문에 일언지하에 거절하였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이 머리 속을 맴돌았다. 그 돈이면 내가 할 수 있는 삶의 혜택과 가족들이 생각</p>

났고 다시 돌아가서 받을까 말까 고민도 들었다.

그날 저녁 회사 동기들을 간만에 불러 술 한잔에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더니 가벼운 술 자리가 갑을론박으로 토론의 장이 열렸다. “아니 그 큰돈을 왜 놀리냐? 그 돈이면 여기 술값으로 몇일을 보낼 수 있는데 그돈을 마다하는거야!”, “잘했다. 그거 받으면 너 그 업체 놀이개가 되거나 아니면 회사 짤렸어” 반응은 재 각각 이었다. 그리고 동기들이 멋지다는 응원 속에 자리를 마쳤다. 가슴속에 묘한 자부심과 땃땃함이 일어 더욱 나를 당당하게 해주었다.

몇 일 뒤 해당 업체와 선적관련 문제로 부산신항으로 출장을 가야하는 일 이생겼다. 업체 사장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먼저 현장에 수출포장 관련 검수 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인 협조로 쉽게 일을 진행 할 수 있었다.

“김 대리님이 처음은 저희 성의를 안 받아 주시는 것 같아 서운 한 마음이 들기도 하였지만, 지금은 생각이 다릅니다. 필요하실 때 저희가 성심껏 협조 한다면, 저희 서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해주었다. ‘만약 그때 나는 돈을 받았다면 그 당시 어떻게 했을까?’라는 자문을 해본다. 아마도 제 돈을 주고도 정당한 요구도 못하고 혼자 찢찢 매는 모습이 눈에 선하였다.

시간이 흐른 지금 나는 공기업에서 청렴성이 그 어떤 순위 보다 우선시 되는 곳에 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한지 1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 그 일을 생각하며 내 자신이 어떻게 해야 더욱 땃땃하고 당당하게 사는 법을 알고 있다. 그 어떤 유혹에 넘어가는 것 보다 내 소신과 내 자신과의 신의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스스로를 주어진 삶에 주인공으로 만든다는 것을...

※ 작성 방법

1. 작성분량 : A4 2페이지 이상 3페이지 이내
2. 글씨크기 : 13 포인트 / 글씨체 : 휴먼명조 / 줄간격 : 160%
3. 형식제한 없이 작성양식에 맞추어 자유롭게 작성